



무역의존도가 1980년 31.7%에서 2010년 84.6%로 높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무역은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꼽힌다. 사진 최재구 기자

무역 2조 달러 향해 달린다

대기업 위주 성공에서 탈피
무역구조 쇄신 · 서비스산업 발전

한국 무역이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으니 이번 목표는 2조 달러다. 정부는 8년 후인 2020년을 목표 달성 시기로 잡았다. 올해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세계 경제를 아연 긴장의 늪에 빠뜨린 유럽 재정 위기는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이는 수순이고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서방 진영과 이란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세계 경제의 약조건 속에서 한국은 올 1월 무역수지가 2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시작이 빠듯했지만 정부는 야심 차게 무역 2조 달러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성과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측면에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2조 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역구조 쇄신과 서비스산업 발전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정부는 8년 후인 2020년, 무역규모 2조 달러 시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역구조 쇄신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무역 새 출발선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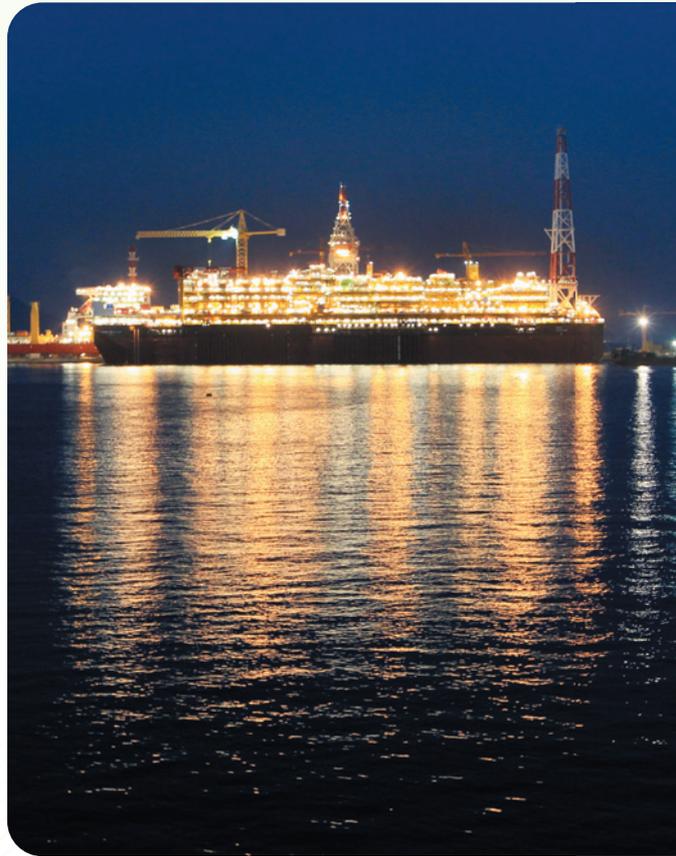
한국은 지난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1947년 1억 달러를 넘어선 지 60여 년 만에 이룬 쾌거다. 한국은 1964년 5억 달러, 1988년 1천억 달러, 2005년 5천억 달러를 각각 돌파하는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우리보다 앞선 8개 국가가 1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평균 26.4년,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는 8.4년이 각각 소요됐으나 한국은 23년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역의존도가 1980년 31.7%에서 2010년 84.6%로 높아진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역은 말 그대로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2조 달러'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앞서 무역 1조 달러클럽에 가입했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1조 달러 아래로 다시 곤두박질친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한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의 5개국뿐이다.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인 올해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올해 초 무역 '빨간 불'... 경제 불확실성 증대

올 1월 무역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와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 새해 벽두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인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415억3천7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6% 감소한 반면 수입은 434억9천40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수출 감소는 2009년 10월 이래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는 이에 따라 19억5천700만 달러 적자로 반전됐다.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는 2008년 40억 달러, 2009년 38억 달러, 2010년 8억 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다 2011



올해 1월 무역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세 등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무역은 새해 벽두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사진: 진성철 기자

년에만 예외적으로 고가의 선박 인도 등 조선 분야의 호조에 힘입어 25억 달러 흑자를 냈었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적지는 전에도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좋지 않은 흐름이기는 하나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적어도 2월 또는 3월까지 묶어서 통계를 봐야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유럽 재정 위기는 1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2월21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베트남 하노이의 신도시. 한국 무역이 세계로 뻗어가려면 성장률이 둔화하는 선진국보다 신흥국 시장을 노려야 한다. 유럽 재정 위기로 혼란에 빠진 선진국보다는 신흥 시장의 성장여력이 그나마 더 크기 때문이다. 사진 김선한 특파원

패키지에 최종 합의했다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최근 이란 핵 사태로 불거진 중동의 긴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남아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144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로 낮추는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이란발(發) 군사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이 직격탄을 맞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2조 달러 달성에 정부·민간 힘 모은다

지경부는 2월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무역 진흥 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환경을 뚫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지경부는 무역 2조 달러 달성 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그 때까지 수출 능력이 부족한 내수 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 10만 개를 역량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2010년 현재 8만여 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늘려 수출 상담 제공과 무역촉진단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500만 달러 목표 '선도기업'과 5천만 달러 목표 '강소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의 45.2%에 그치고 있는 소재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60.0%까지 높이고 기계,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100대 핵심 부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작년의 19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은 14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각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무역 2조 달러 시대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첨병인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의 역할이 새삼 중요해지는 이유다. 앞서 코트라는 2월1일자로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중소기업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별 마케팅 지원과 현장 경영도 강화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한 선진시장 진출 지원을 전담하는 FTA사업팀도 설치하고 산업자원협력실을 강화해 신흥시장 프로젝트 진출 등을 돕는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K팝을 중심으로 부는 한류 열풍을 이용한 문화 수출에도 역점을 둔다. 그동안 무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과를 냈지만 2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에는 문화 콘텐츠 수출도 한몫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42억 달러로 추정되는 문화 콘텐츠 연간 수출액을 2020년까지 224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체계 마련,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특히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한 ‘킬러 콘텐츠’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콘텐츠가 세계적 에이전시와 연결되는 상용화 체계를 강화하고 고유문화가 살아 있는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3D, 컴퓨터 그래픽, 스마트 콘텐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매출 1억 달러 이상 콘텐츠를 2010년 16개에서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한국무역협회는 FTA 효과 조기화와 신흥시장 공략에 주력하기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계 부처와 기관의 파견 인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기관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FTA 활용 단계별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며 FTA를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무역상담회도 준비한다. 한-유럽연합(EU) FTA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확대해 한-미 FTA 정보 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이어 인도, 아세안 등으로도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무역구조 쇄신과 서비스산업 발전이 관건

우리나라 무역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2조 달러 시대를 열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무역구조 쇄신과 서비스산업 발전 등 질적인 면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 경제에서 떠오르는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처방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끈 것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업종은 전기전자였다. 1970년대에는 도소매업(종합상사)과 섬유, 1980년대에는 건설과 백색 가전이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다. 1990년대 이후 전기전자(PC, 반도체, 휴대전화 등)와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발전했고 2000년대에는 금융·보험과 운송장비(자동차, 조선), 기계 등으로 주력 산업이 확대됐다. 대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중화학, 첨단 산업의 수출 주도과 약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자연히 소외됐다. 그러나 강한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히트 수출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무역 2조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중소기업 불균등 발전도 시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려면 대기업 중심의 소수 정예 품목 생산·수출 구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며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었다.

세계 7위까지 뛰어오른 상품 수출과 달리 아직도 15위에 처져 있는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의 하나다. 의료서비스, 컨벤션산업, 이벤트사업 등의 분야에서 개척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술하게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영호 코트라 사장은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 무역대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세계 7위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무역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성장률이 계속 둔화하는 선진국보다는 성장 여력이 훨씬 더 큰 신흥국을 노리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시장의 위축을 점치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의 고성장은 적어도 10~20년은 더 지속할 수 있으며 인도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큰 신흥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선진권의 경기 침체를 딛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려면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또 다른 거대 신흥국들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권 산업부 기자 kong79@yna.co.kr